



## 포르투갈 스콜라리 감독

# 월드컵 10연승

루이스 펠리프 스콜라리(58) 포르투갈 감독이 월드컵 10연승을 달성했다. 스콜라리는 22일(한국시간) D조 조별리그 3차전에서 멕시코에 2-1의 승리를 거둬 3승을 획득, 조1위로 16강에 올랐다. 브라질 출신인 스콜라리는 자국 대표팀 감독을 맡았던 2002년 한일월드컵때 7연승을 거두면서 우승을 차지한

스콜라리는 유럽축구선수권대회 우승에 목말라하는 포르투갈의 요청을 받고 2003년부터 감독을 맡았다. 스콜라리는 2004년 유럽선수권대회(유로 2004)에서 준결승에 그쳤으나 그의 뛰어난 통솔력은 포르투갈 축구 팬들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고, 그는 감독으로 계속 남아 포르투갈을 이번 월드컵 본선에 진출시켰다. 포르투갈은 유럽 지역 예선에서 35골의 가장 많은 득점

## 2002년 7연승 (당시 브라질 감독) + 2006년 3연승

데 이어 이번 월드컵까지 10경기 연속 승리를 거두고 있다. 이는 월드컵 기록이다. 한일월드컵을 지켜본 한국의 축구팬들은 모두가 그를 기억하고 있다. 트레이드마크인 콧수염과 활활하게 벗겨진 이마는 마치 할리우드의 명배우인 진 헤르먼을 연상시키고, 인상은 좋은 이웃집 아저씨 같기도 하다. 그러나 그는 승부욕과 투철한 규율 의식으로 무장, 엄격한 군대 주입상사와도 같은 카리스마를 지니고 있다. 한일월드컵때 브라질에 통산 5번째 우승컵을 선사한

을 올리면서 12전9승의 성적을 거뒀다. 월드컵 10연승을 거둔 스콜라리는 연속 기록 경신과 함께 또 다른 기록 달성을 노리고 있다. 두 팀의 감독을 맡아 각각 월드컵에서 우승하는 것, 즉 브라질에 이어 포르투갈을 우승 대열에 올리는 것이다. 그는 이날 경기 후 AP통신과 인터뷰에서 "결승전에 가기 위해서는 아직 3차례의 경기를 치러야 하지만 낙관하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 주요 경기 전망

### 16강 첫 경기

▲독일-스웨덴(25일 0시)  
월드컵 개최국 독일은 조별리그에서 파죽의 3연승을 달리며 조1위로 16강에 진출해 B조 2위(1승2무) 스웨덴과 격돌하게 됐다. 조별리그에서 8골을 뽑아내는 막강한 화력을 자랑하고 있는 '전차군단' 독일은 미로 슬라프 클로제와 투카스 포틀스키라는 걸출한 골잡이를 앞세워 4년전 준우승에 그쳤던 아쉬움을 흠에서 털어버리기 위해 힘차게 진군하고 있다. '바이킹의 후예' 스웨덴은 2002년 대회에 이어 16강에 올랐지만 탄탄한 전력에 걸맞은 득점력을 아직까지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

### 메시 VS 브라보 대결

▲아르헨티나-멕시코(25일 오전 4시)  
아르헨티나는 이번 대회에서 우승 후보로서의 면목을 확실히 보여줬다. 에르난 크레스포와 하비에르 사비올라가 이끄는 투톱 라인과 후안 로만 리켈메가 지휘하는 미드필더진은 어느 팀과 맞서더라도 골을 터뜨릴 수 있는 호화 진용이다. 더욱이 새별 리오넬 메시가 선배들 못지않은 활약을 펼치며 이번 대회를 빛낼 신인 왕 후보로 꼽히고 있다. 톱시드로서의 자존심을 지킨 멕시코는 백업 요원에서 주전을 꿰차며 이번 대회 그라운드를 종횡무진 누비고 있는 오마르 브라보가 버티고 있고 주전 골키퍼 오스왈도 산체스의 선방도 든든하다.

### 잉글랜드 '부상병동'

▲잉글랜드-에콰도르(26일 0시)  
'축구의 종가'라는 수식어가 따라 다니는 잉글랜드지만 1966년 월드컵 우승 이후 강팀과의 격돌에서는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다. 16강에서는 비교적 수월한 에콰도르를 만났지만 주전 선수들의 부상 악몽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맞서는 에콰도르는 이번 대회 불종의 팀이다. 에콰도르는 A조에서 비록 독일에 0-3으로 패하긴 했지만 2승1패의 성적으로 16강에 올랐다. 간판 스타 아구스틴 델가도, 카를로스 테노리오를 독일전에 출전시키지 않고 16강전을 대비해 에콰도르의 돌풍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관심사다.

### 피구 노장투혼 기대

▲포르투갈-네덜란드(26일 오전 4시)  
브라질 출신의 명장 루이스 펠리프 스콜라리 감독의 지휘 아래 포르투갈은 더욱 강한 팀으로 바뀌었다. '황금 세대' 루이스 피구가 대표팀에서의 마지막 무대를 화려하게 장식하기 위해 투혼을 불사르고 있고 신예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와 브라질에서 귀화한 데쿠가 한방을 준비하고 있다. 우승 후보 중의 하나인 네덜란드는 왼쪽 날개 아르연 로번의 폭풍같은 질주에다 중앙 공격수 윌트 판 니스텔로이로 이어지는 득점 방정식으로 16강의 관문을 돌파할 태세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아르헨티나 0-0 네덜란드 발 맞추어 16강 가세

22일 프랑크푸르트 경기장에서 열린 C조 아르헨티나와 네덜란드 경기에서 아르헨티나 에스테반 칸비아소(왼쪽)와 네덜란드 윌트 니스텔로이가 볼 다툼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 ■ 주요 경기 결과

### 앙골라, 월드컵 첫골에 만족

▲앙골라-이란(1-1)  
앙골라가 16강 진출을 위해 총공세를 펼쳤으나 득점력 빈곤이 아쉬운 경기였다. 아프리카 지역 예선에서 터득해온 나이지리아를 물리치고 사상 첫 월드컵 무대를 밟은 앙골라는 '월드컵 1호골'을 터뜨린 듯이 씩씩한 축포가 되고 말았다. 2패로 16강 탈락이 확정된 이란은 플레이 메이커인 미드필더 알리 카리미 등 주전 3명을 후보로 교체해 무기력한 경기를 펼쳤다. 반면 조급한 앙골라는 전반 거친 공세를 펼쳤으나 이란은 쉽게 골문을 열어주지는 않았다. 앙골라는 후반 15분 플라비우가 오른쪽에서 날아온 크로스를 정확한 헤딩슛으로 연결해 선제골을 터뜨렸다. 하지만 이란은 앙골라에 더 이상의 희망을 허락하지 않았다. 후반 30분 이란의 소라브 바흐티아리자데가 헤딩슛을 성공시켰고 앙골라의 16강 꿈은 물거품이 됐다.

### 주전들 없는 맥빠진 경기

▲아르헨티나-네덜란드(0-0)  
이미 16강 진출을 확정지은 양팀은 경교 노적을 우려해 주전 선수들을 대거 제외시켜 경기는 시종일관 맥빠진 흐름이었다. 아르헨티나는 에르난 크레스포, 하비에르 사비올라, 가브리엘 에인세를 선발 명단에서 빼고 네덜란드는 아르연 로번, 요리스 마테이션, 히오바니 판 브롱크호르스트, 온 헤이팅아, 마르크 판 보말 등을 벤치에 앉혀 놓았다. 소강상태가 이어지던 경기는 전반 28분 아르헨티나 후안 리켈메의 프리킥을 네덜란드 수비수가 걸어낸 것이 골대를 맞아 탄성을 자아냈다. 반격에 나선 네덜란드는 35분 베슬레이 스네이더르가 회심의 슛을 날렸으나 아르헨티나 수비수가 걸어냈다. 후반에도 양팀은 일진일퇴를 거듭했으나 끝내 득점없이 비겼다. 이날 양팀은 유효 슈팅수가 각각 3개에 그쳤으나 반칙은 38개를 주고 받으며 지루한 난전을 벌였다. 역대 상대성적에서는 네덜란드가 2승1패1무로 리드를 지켰다.

### 16강 탈락팀들 마지막 일전

▲코트디부아르-세르비아(3-2)  
양팀 모두 16강 탈락이 확정된 가운데 세르비아가 전반에 2골을 선취, 체면치레를 하는 듯 했다. 세르비아는 전반 10분 니콜라 지기치가 중원에서 날아온 볼을 잡아 골키퍼를 가볍게 제치고 골문에 밀어넣었고 전반 20분 사샤 일리치코 코트디부아르의 수비수가 실책으로 바로 앞에 떨어뜨려 주자 그대로 주위담았다. 그러나 이후 코트디부아르가 세르비아 문전에서 잇따라 행운을 얻었다. 전반 37분 코트디부아르는 아르튀르 보카가 페널티 왼쪽 바깥지역에서 올린 크로스를 세르비아의 밀란 두디치가 골대 정면에서 오른손으로 건드려 페널티킥을 획득, 아르누 단다네가 가볍게 차넣어 1골을 만회했다. 세르비아 문전을 실재없이 위협하던 코트디부아르의 단다네는 후반 22분 페널티 오른쪽 외곽에서 날아온 크로스를 머리로 받아넣어 동점골을 터뜨렸다. 후반 41분에는 코트디부아르 보나방튀르 칼투의 슛이 세르비아 페널티지역 안에서 수비수의 손에 또 맞았다. 칼투는 페널티킥을 가볍게 차넣어 역전골을 성공시켰다.

## ■ BEST & WORST

### 추격골이 동점골 대역전극 주인공

▲베스트=아르누 단다네(코트디부아르)  
경교 노적으로 결정한 디디에 드 로그바의 빈 자리를 확실하게 메웠다. 주전 공격수가 빠진데다 경기 시작 20분만에 2골을 내준 코트디부아르의 대역전극은 단다네가 있기에 가능했다. 전반 37분 페널티킥 골로 추격에 시동을 건 단다네는 후반 22분에 기



어이 동점골까지 뽑아내 코트디부아르의 3-2 대역전극에 앞장섰다. 벨기에리그 안더레흐트에서 뛰면서 한 차례 득점왕에도 올랐던 단다네는 이날 경기 맹활약으로 월드컵에 처음 출전하는 조국에 값진 본선 첫 승의 기쁨을 안겨주었다. 국제축구연맹(FIFA) 테크니컬 스타디움의 로드리고 켈튼 위원은 이날 경기 후 "단다네는 적극적인 공격축구를 펼쳐 두 골을 몰아넣었다"면서 단다네를 이 경기의 '맨 오브 더 매치'에 선정했다.

### 한경기 두번 핸들링 페널티킥 허용 '으악'

▲위스트=밀란 두디치(세르비아-몬테네그로)  
월드컵 내내 한 번 하기도 힘든 핸들링 반칙을 한 경기에 두 번씩이나 한 두디치에게 22일 코트디부아르 전은 악몽과 같았을 것이다. 두디치는 전반 37분에 페널티 지역 안에서 핸들링 반칙을 범해 페널티킥을 헌납(2-0)에서 2-1로 점수차가 좁혀지는 빌미를 제공했다. 이어 2-2 동점이던 경기 종료 4분여를 날기고는 또 한 번의 핸들링 반칙으로 페널티킥을 내줘 결국 이날 세르비아-몬테네그로의 2-3 패배의 '원흉'이 됐다. 두디치는 이번 대회에서 총 3개의 반칙 중 2개가 결정적인 핸들링 반칙을 범해 두고두고 아쉬움으로 남을 것 같다.